

# CONTENTS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3.09



- 02 FOCUS** 2013 하반기 기획특집  
"해외다일공동체 속속들이 알아보기"  
- 중국 / 베트남
- 08 REVIEW** 여름방학맞이 봉사활동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공부,  
밥퍼나눔운동"
- 12** 국내 다일의 현장 설곡산다일공동체
- 14** 천사기업 국민체육진흥공단
- 16** 봉사자 나눔터 밥퍼는 000다
- 17** 봉사자 나눔터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18**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19**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4** 후원 안내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3년 09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 495-15 편집위원 | 김철민, 김효은, 목정수, 이가영, 이태형, 황선아  
사진 | 목정수 디자인 | 이진희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 니하오! 중국다일공동체

\*니하오는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 World Mission

중국다일공동체는 최일도 목사님이 1999년 6월 중국 길림성 훈춘시 밀강향에 훈춘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시골학교 축소 및 아이들의 성장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2004년 7월 훈춘시내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조선족과 한족 어린이들이 다일공동체의 사역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전혀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중국사회를 섬길 건강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중국다일공동체 주요 사업

**1 양육**  
다일어린이집은 중국 조선족 자치주 내의 고아들을 내 자식, 내 가족으로 삼아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양육함으로, 중국사회와 아시아를 섬길 건강한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 1:1 아동결연**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전 후에 입소하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보호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므로 한국의 실업계나 인문계 진학과 같은 교육이 중국에서는 비싼편으로 많은 가난한 형편의 조선족, 한족 아이들은 중학교 졸업 이후 꿈을 포기하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중국다일공동체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으로 한 아이 고등학교 보내기, 대학 보내기 등의 결연을 맺어주시길 분들을 기다립니다.

**3 교육&장학**

〈삼성 꿈 장학재단 멘토링 프로그램〉  
훈춘시의 교육환경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어서 등록금은 지원해주지만 학비를 제외한 학업 보조비의 부담이 큼니다.

이런 상황의 아이들에게 삼성 꿈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체계적, 조직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의 재능에 따른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정서적 지원 및 학습동기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박상원 도서관〉  
다일어린이집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박상원 홍보대사의 후원으로 박상원도서관이 개원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도서를 접하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 〈대북사업 기초수립〉

처음 다일공동체가 두만강 건너에 훈춘시 밀강 땅에 자리 잡고 다일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된 이유는 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는 아이들에게 생명키트(쌀과 기초물품 주머니)를 강 주변에 놓아두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변지역(조선족자치주)의 소외된 고아들의 현실을 알게 되어 12명의 고아를 양육하게 된 것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10년 넘게 훈련된 아이들이 다일의 사역자가 되어 북한의 동포들과 아시아의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성품과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DAIL Community of  
China



김학용 원장

E-mail, mookanri@dail.org  
Tel. 070-7792-5451 /  
86-433-753-8004  
Mobile. 86-183-4339-7009

### 후원안내

#### 〈교육, 장학 후원〉

어린이집 보육 후원	월 10,000원
1:1 아동결연	월 30,000원
대학 등록금 보내기(1명)	1년 1회 1,000,000원
대학생 생활비지원(1명)	월 200,000원

#### 중국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65  
기업은행 017-033086-01-021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썬자오! 베트남다일공동체

\*썬자오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 World Mission

2002년 6월 30일 다일복지재단 설립자 최일도 이사장이 알리안츠 생명으로부터 은혜를 빛낸 한국인 대상으로 받은 5천만원을 전액 현금하여 굶주리고 병든 소외된 아시아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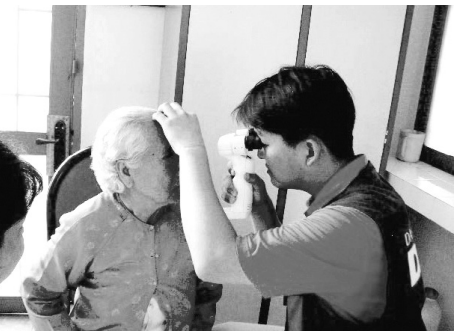
## 베트남다일공동체 주요 사업



**1 무료급식**  
2002년 6월 베트남다일공동체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직접 급식이 허락되지 않아 호치민시 야딘병원 및 암 병원에 무상 급식비를 제공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10년 8월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는 정부로부터 N.G.O 인가를 받아 빈탄군 빈홍화 마을에서 고아, 과부,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에게 직접 무상급식(밥퍼) 및 도시락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교육 & 장학**  
빈곤이 대물림 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아동결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보내주기,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학습 물품 지원 등의 물질적 서비스와 교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 무료진료(다일천사클리닉)**  
의료봉사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치료 및 필요한 약을 나누고 있으며, 2004년 구순구개열수술과 2009년 개안 수술을 시작으로 장애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변화 프로젝트를(BCP)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의 변화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4 재가복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등 소외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도시락 및 생필품 지원, 집수리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후원안내

〈나눔회원(\$100의 기적동역자)과 천사회원(\$1,000의 기적동역자)〉

- 베트남계좌 (예금주: DAIL SOCIAL WELFARE FOUNDATION)  
미국달러(USD)용      우리은행(호치민지점) DDA912087824  
베트남 화폐(VND)용      우리은행(호치민지점) DDA912087837

- 대한민국계좌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대한민국(KRW)용      국민은행 467701-01-142594

*DAIL Community of  
Vietnam*



이종현 원장

E-mail. lplhome@dail.org  
Tel. 070-8220-6160  
Mobile. 84-12-6317-7912

## 베트남다일공동체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한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후원 받아도 물품을 운반할 차량이 없어서 물품을 꼭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난하고 험벗은 이웃들에게 물품들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해 달라며 정성껏 준비하여 보내주시는 물품을 베트남은 물론이고 캄보디아나 주변국에도 전해 주고 싶은데 운반할 차량이 없는 실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에 필요한 차량구입을 위해서 \$20,000이 더 필요합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 사역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천사가 되어 주세요.



# Review

여름방학맞이 봉사활동

##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공부, 밥퍼나눔운동

햇빛은 짹짹, 모래알은 반짝 ~♪  
무더운 여름방학, 산으로 바다로~ 떠나볼까요~?!  
아니아니아니!! 우린 봉사활동하러 밥퍼가요~!!

유난히 무더운 8월입니다.  
시원한 물놀이가 절로 떠오르는 날씨인데요,  
바다와 계곡을 뿌리치고 봉사의 땀방울을 선택한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어르신들께 밥한끼 대접하기 위해 채소도 다듬고 칼질도 하고,  
뜨거운 열기를 한껏 발산한 자랑스러운 학생들!  
봉사를 통해 마음도 채우고,  
봉사 점수 또한 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를  
몸소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더 눈부시길 기대해봅니다.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영재원, 영동고, 덕산고 학생들

### 방향명록

#### 밥퍼는 거울이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김선장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18년 '밥퍼'라는 거울을 통해 저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외롭고 지친 이들을 위해 도와주시는 봉사자 분들과 그 도움에 희망을 보시는 불우하고 외로운 이웃들의 모습에 저 역시 저를 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 볼 수 있게 저 자신을 비춰 준 밥퍼 나눔운동본부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 밥퍼는 인생의 카타르시스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서기수  
9시에 도착하자마자 양파를 까는 순간 눈물과 함께 짜증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지쳤지만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걸 보고 힘들었지만 '할만하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식사를 배급해 드릴 때는 어르신들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참 봉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계속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 도 꾸준히 와야겠다.





왼쪽부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웅천중, 깊은생각어학원 학생들

**밥퍼는 희망이다**

웅천중학교 라동규  
힘든사람들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노숙자들도 밥퍼에 와서 밥을 먹으며 희망을 얻어  
가게 해준다. 우리가 이 봉사를 하면서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랬지만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과 여러사람을 위해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을 보며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 꼭  
다시 하고 싶다!

**밥퍼는 또 다른 그림자다**

웅천중학교 박범식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밥퍼에서 밥을 먹으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이  
다. 그리고 밥퍼에서 평소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간이 없는 사람, 눈  
이 안보이는 사람 등 힘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여 주고 정성들인 밥을 주기 때문이다.  
정말 가슴이 찡했다. 난 다시 이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

**밥퍼는 우물이다**

웅천중학교 정예훈  
밥퍼는 자신이 마르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계속 퍼주고 퍼주는 우물과 같다.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갈증을 해소해주고 포만감을 선사해주며 힘들고 필요한 자에게  
한줄기 빛과 같이 도와준다. 이런 봉사를 함께 하게 되어 뿌듯하고 행복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

**밥퍼는 휴게소다**

깊은생각국어학원 주영상  
힘든 분들이 들러서 밥 한끼와 함께 쉬어갈 수 있어서 그분들에게 밥퍼는 좋은 휴게소이다.

**밥퍼는 공부다**

깊은생각국어학원 박아영  
방학이지만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고등학생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어르신들을 위해 내  
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너무 기뻐다. 내가 하는 공부 이외에 더 뜻깊고 아름다운 가  
르침을 받은 것 같아 그 어느때보다 뿌듯하였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웃음이 났던 이유도  
그 뿌듯한 감정 때문이 아닐까 한다. 소박한 음식이지만 맛있게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을 보고 이것도 그들에게는 커다란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배웠다.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 하는 공부보다 더 깊은 공부가 되었고 평생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 다일공동체 25주년 기념 학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올해는 다일공동체가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린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지만, 가난과 배고픔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참 사랑을 실천했던 시간이었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현재 밥퍼나눔운동본부와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등에 다일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오는 9월 6일, 밥 한 그릇으로 시작 된 다일공동체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25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분석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학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정중히 초청드리오니, 참석하시어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목 적** 다일공동체의 25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학술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를 가진다.
- 일 시** 2013년 9월 6일(금) 오후 4시 ~ 9시까지
- 장 소**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소강당
- 만 찬** 오후 6시 ~ 7시
- 주제강연** 21세기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다일공동체의 의미  
- 박종삼 박사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제 1주제 다일과 영성**  
다일공동체의 영성생활/ 다일영성수련과 DTS  
훈련/ 치유와 회복의 사역 등  
발제: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이 추구하는 영성과 영성신학적인 고찰  
발제: 이강학 박사  
(햇빛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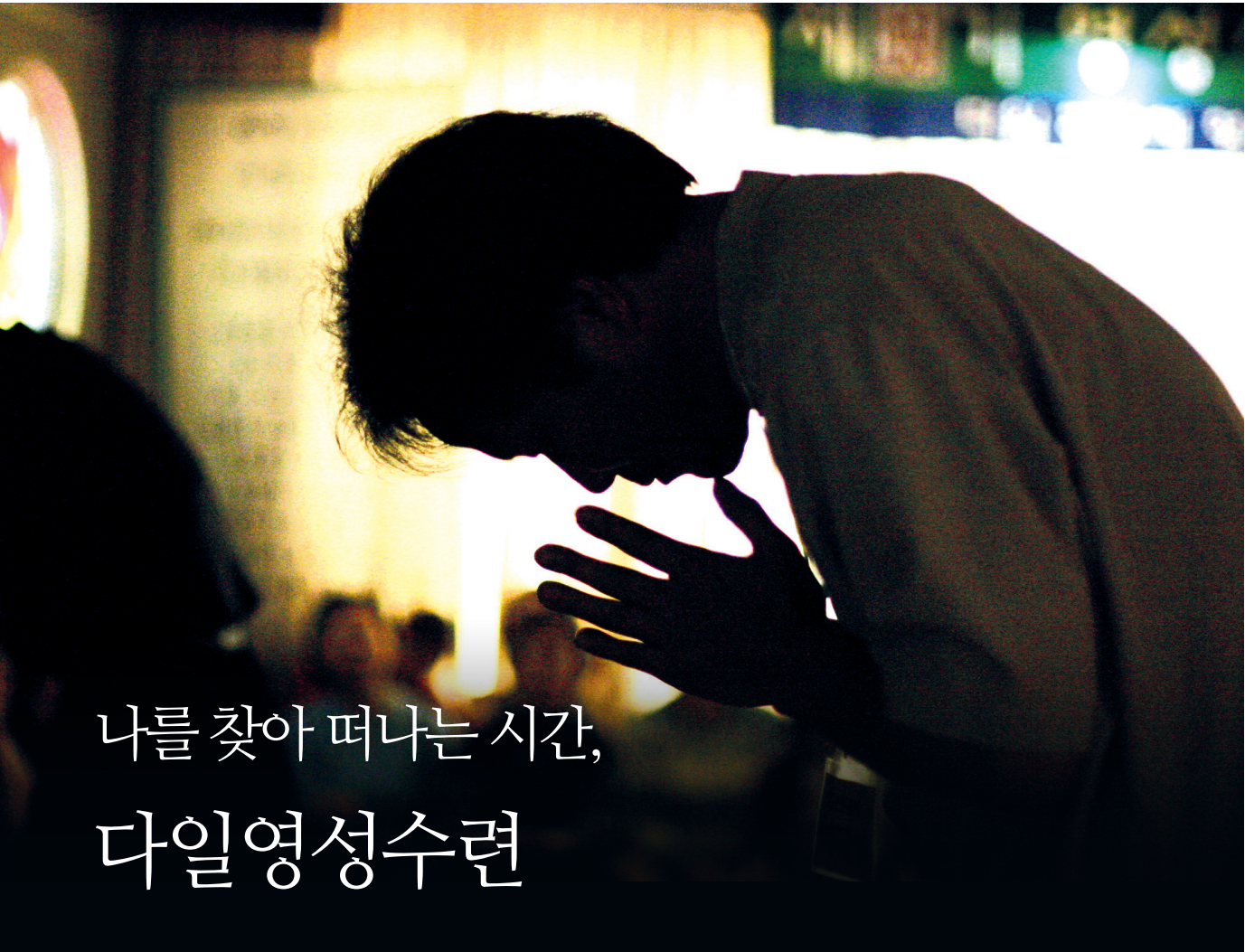
**제 2주제 다일의 성사생활 예배와 전례**  
다일공동체의 예배 생활과 전례  
발제: 정장복 박사 (한일장신대 명예총장)

**제 3주제 다일과 공동체 생활**  
다일공동체의 공동체 정신과 특질  
발표: 유장춘 교수 (한동대학교)

**제 4주제 다일과 사회복지 실천**  
다일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실천의 전망과 과제  
발표: 김동배 교수 (연세대학교)

**제 5주제 다일과 국제 NGO 활동**  
다일공동체의 해외 사역의 전망과 과제  
발표: 조홍식 교수 (서울대학교)





#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 다일영성수련

설곡산다일공동체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몸으로 체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심적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설곡산다일공동체 가족들은 하루 세 번 기도와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성서 묵상을 통해서 침묵과 묵상을 깊이 경험합니다.

내가 나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섬기는 설곡산다일공동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곡산다일공동체  
김연수 원장

###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아름다운 세상찾기는 주강사인 최일도목사와 여러 준비된 부강사들과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친 당신이 마음 둘 곳이 없어 어디든 갈 곳이 떠오르지 않거든 또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 쫓겨 살면서 아직까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찾을 수 없었다면 일단 우선 멈춤하고 아름다운세상찾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4박5일 간의 침묵으로 여러분은 마침내 변화하는 세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과연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온 몸으로 고백하며 춤추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는 신앙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번, 일년에 12회 정도 진행됩니다.

###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1단계 아름다운세상찾기 수련에서 변화능력을 체험한 벗님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을 위한 수련입니다.

1단계에서 생각과 느낌의 변화를 체험하셨다면 2단계 작은예수살아가기는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련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나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작은예수살아가기는 십자가의 길과 제자도를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추구하는 영성의 길을 벗님들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제자의 동반(道伴)과정입니다. 5박6일 기간이며 1년에 2회 정도 실시됩니다.

###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1단계 아름다운세상찾기와 2단계 작은예수살아가기를 수료하신 벗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수련입니다. 2단계 작은예수살아가기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예수가 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련하셨다면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수련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요8:29)을 찾습니다.

6박7일 동안의 대침묵 속에서, 동반님은 영적과양의 골방에서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어인 침묵으로 대화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으면 세상도 나도 간데 없고 구속(救贖)한 주만 보이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기간은 6박7일이며 1년에 2회 정도 실시됩니다.

수련일정안내

설곡산다일공동체  
Tel 031-585-2004 Fax 031-585-6479  
Email sgdaily@dail.org, abehong@dail.org







## 진정성, 관심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웃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KSPo)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밥퍼나눔운동본부,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체육과 밥의 만남! 건강한 만남이라 할 수 있네요^^ KSPo에서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께 위로와 희망을 주는 밥을 나누는 일은 곧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하는 일로서 뜻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 KSPo가 지향하는 비전인 '국민 모두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스포츠 공익기업'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4년째 밥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책임을 넘어 국민의 일익을 담당하고자하는 KSPo의 사회공헌 정신을 생각한다면, 밥퍼나눔운동은 저희 임직원들이 기꺼이 해야 할 일이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KSPo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약간 생소하게 다가와요. KSPo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KSPo는 88서울올림픽 잉여금을 재원으로 1989년 설립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미션 아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륜, 경정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가 체육재정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쓰여짐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완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의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더불어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무료 생활체육 지도 등의 사업에 지

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우수 선수 육성, 비인기 종목 육성 등의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 김연아, 박태환 선수 등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고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스포츠산업전시회(SPOEX), 투르드코리아 등의 스포츠산업 육성과 장애인들의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스포츠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대상 스포츠바우처사업과 무료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KSPo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사랑나눔봉사단]을 통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이 인상깊게 다가옵니다.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하시는 것 외에도 어떤 사회공헌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밥퍼나눔운동 외에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밀착형 정기봉사,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1사1촌운동, 사랑나눔 단체 헌혈 그리고 소외계층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희망 ReSTART, 청소년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KSPo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은 '스포츠 특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스포츠는 미래입니다.' 라는 슬로건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통한 나눔, KSPo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나눔활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이 있고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맞습니다. '스포츠는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저희 KSPo는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쉽게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F1 자동차 경주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관람'과 함께 여름에



는 시원한 경정장에서 수상스포츠를, 겨울에는 올림픽공원 내 율곡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체험하는 '스포츠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수혜자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용품을 지원하는 '사랑나눔보따리'와 해외 저개발국 아동을 위한 '해외 스포츠 용품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지적장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닐링캠프를 운영해 참여자들과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 번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해 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이번에는 어르신들 진지대접을 위해 선뜻 쌀 4톤을 기부해 주셨어요. 기부해 주신 쌀로 귀한 진지 맛있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SPo에게 '나눔'이란...?**

나눔에 참여함으로써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에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KSPo에게 나눔이란 진정성, 관심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성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스스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한 저희 임직원들 역시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기를 기대하며 어르신들께서도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사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다일공동체의 국내외의 사업에 동참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기업을 기다립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 밥퍼는 000이다

**열린창문이다** 태광 티브로드 **최재영**  
열린 창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내다 보듯 '밥'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창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듯이 '밥'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연못이다** GE OWS **심민섭**  
어느 누구하나도 불평 불만없이 열심히하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 어느 누구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연못같은 존재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언제든 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다** 김용덕  
늦게나마 다일공동체 방문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다일공동체가 이 땅에 모든 굶주린 자들의 쉼터가 되고 모두가 사랑으로 한가족 한이웃 한형제 한친구 되길 소원합니다.

**천사들의 일터다** 외환은행 **김소미**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즐겁고 행복하여 얼굴과 마음에 밝은 웃음이 생기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몸이 절로 흥겨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았습니다. 행복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천사들의 일터입니다. 오늘 하루 천사가 될수 있어 감동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다** 목포하나교회 **최미옥**  
CBS로만 봤던 밥퍼 체험은 저에게 예수님 사랑만큼 낮아지고 섬겨라(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처럼 삶속에서 더 적용하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오늘 체험으로 인종차별 하지 않는 영혼사랑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공짜아닌 공짜다** 신광여자고등학교 **박지선**  
세번째 오는 밥퍼, 처음에는 단지 무료식사를 제공해주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다. 봉사로 오기엔 뭔가 부담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식하고 할 때 땀은 나지만 기분 나쁘지 않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의 소중한 땅이라 생각되었다. 밥퍼는 비록 밥은 무료이지만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한끼 식사보다 더 값진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다. 배부름을 주고 사랑을 주는 밥퍼, 마음의 배부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다.

**미소다** 부산중앙교회 **구영인**  
오늘 배식을 하는 동안 계속 서있고 음식을 만들때에도 뜨거운 불 앞에 있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뿌듯함과 미소만 띄었다. 밥퍼라는 활동을 알고만 있었던 나에게 처음 봤던 영상, 오늘의 봉사까지도 새로웠고 즐거웠다. 어르신들께 안마를 해주던 시간 낮가림이 많아 새로운 사람이 많이 만나면 잘 웃지 못하던 내가 계속 미소를 띄고 있다는 것에 신기했고 내 적성인 것 같다.

**모래시계다** 붉은 **김지윤**  
어느새 모래가 다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봉사하는 동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한쪽의 모래가 다 비어지면 다른쪽이 채워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른만큼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람이 가득 채워졌다.

**햇살이다** SCL **김정승**  
비오고 바람부는 추운 날에는 누군가의 한끼가 식사가 되어 따뜻하게 비춰주고, 참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뜨거운 날에는 기분을 따스하게 만들어 주는 모든 사람들의 한끼가 식사가 되어준다.



한마음교회

5년만에 밥퍼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한마음교회, 김근배 담임목사님과 전도회 회장님인 김석 집사님,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교회이름처럼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어르신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달라진 밥퍼의 모습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려주신 한마음교회 감사합니다.



포앤이엔씨

포앤이엔씨(고종복 대표님)와 함께 동암교회 축구선교단(동축회) 가족분들과 함께 비오는 날이지만 가족 야외회를 나온 것처럼 신나게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일과 인연이 깊으신 마인호 장로님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땀흘려 봉사하셔서 뜻 깊은 하루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장대비가 유난히 쏟아졌던 중북날. 쉽지 않았던 빗줄기처럼 실재없이 봉사해주신 정정택이사장님과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임직원 사랑나눔기금으로 쌀 4톤을 선뜻 후원해 주시고 어르신들 기초체력 측정까지 해주셨습니다. 좋은쌀로 어르신들께 대접해드려야 한다고 꼼꼼히 챙겨주신 정정택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영재원

밥퍼와 가장 가까이 있고 어버이날 때마다 직접 만든 카네이션으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주셨던 동부교육지원청. 이곳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 밥퍼와 함께 했습니다. 중학생 답지 않은 의연함으로 봉사를 잘 감당해주고, 안마도 해드리며 기쁨이 되어 드렸습니다.



(주)밀워브라운 미디어리서치

4년만에 봉사를 오게 되셨다며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시던 환한 미소를 보이시던 한분 한분의 얼굴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내년부터는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와서 봉사하고 싶다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이트진로

유난히 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후덥지근함과 장마로 인해 천동번개에 폭우까지 동반한 날씨에 밥퍼의 굵은일을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착한직원들 참 고맙네요.'하시던 윤승길부장님의 흐뭇한 미소에 마음이 참 뽕송뽕송해진 날입니다.



한국기독교의사회

한국기독교의사회에서 5개국(한국,몽골, 타이완,홍콩,일본) 각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약사, 의대생분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통역을 들어가며 익숙치 않은 활동에도 밝은 얼굴로 끝까지 열심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피산악회

KBS관현악단에서 타악기를 연주하시는 김주덕단장님을 주축으로 모이신 아피산악회가 산에 가시는 것보다 봉사하시는 것이 더 좋으시다고 매월 한번씩 모든 열심을 다해 봉사를 하십니다. 오실 때마다 회원분들의 정성을 모아 행복하도록도 전달해 주신답니다.



SCL

무더운 날씨속에 빗줄기가 교차하던 날. 처음 참여한 봉사 낯설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치고 나니 즐거움과 기쁨이 마음에 한가득 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감동과 마음 몽글몽글의 순간순간을 잊지 않고 생활하시겠다는 말씀이 여운으로 남는 날이었습니다.



# 당신의 뜻을

- 토마스 아퀴나스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간절히 열망하게 하고  
지혜롭게 찾게 하고  
온전하게 행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생명 타오르게 하소서.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이루어지게 하소서](도서출판 마음의 숲)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김연수 시인이 소중하게 여겨온 기도시들을 번역하여 엮은 책으로 신앙인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위로 받고 싶고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글들이 담겨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다일영성생활수련원 원장이자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상임이사이며, 시집으로는  
<숨어사는 신화> <그대가 내게로 오면> <아득한 별에 꽃씨 묻으며> <실락원의 연인들> <꽃심>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등이 있습니다.

## 베트남

### 1. 김무민 어린이 생일기념 밥퍼 봉사



김무민 어린이의 4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뜻으로 김무민 어린이 가족분들이 밥퍼 사역지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무민이는 준비해 온 요구르트와 초코파이를 조그마한 손에 쥐어주고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민이의 선물을 전해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얼굴도 귀엽지만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무민이의 행동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러한 무민이가 너무 예뻐서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보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어려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며 웃음과 희망을 전해 준 무민이가 지식과 키가 자라듯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또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무민아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해^^

### 2. LG화학 나눔의 하루

LG화학 김태구대표님과 직원들이 이를 연속으로 급식 재료비는 물론



이고 물품 후원과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첫 날에는 치약, 칫솔, 비누를 둘째 날에는 5kg씩 포장되어 있는 쌀 120개(600kg)를 준비하여 식사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드렸습니다. 쌀과 비누, 칫솔, 치약을 받아주고 고맙다는 말과 기뻐하시는 모습에 봉사자들도 웃음을 보이며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장애로 인해 불편하신 몸이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누어 드린 쌀로 따뜻한 밥을 지어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환하게 웃음 지으며 댁으로 되돌아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진지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3. 삼성전자의 선물

삼성전자 직원들이 밥퍼 사역지에 봉사를 왔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식탁과 의자가 오래되어 낡고 고장이 많다는 사연을 전해들은 삼성전자에서 식탁과 의자를 새 것으로 교환해 주고 노트북 1대와 카메라 1대도 후원해 주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솔선수범하며

웃음으로 봉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분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겨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삼성전자가 최고야!!!

### 3. 숭선수범 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 호치민지점에 객인식부지점장님께서 지점장님으로 승진하시는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객지점장님은 기업은행에서 밥퍼 봉사를 시작 할 때부터 봉사에 열심히 참여 하셨습니다. 지점장님으로 승진하여 새로운 업무 파악과 기업체를 방문하는 바쁜 일정에도 밥퍼 봉사에 참여하여 식사를 일일이 식탁에 가져다 드리며 인사와 맛있게 드시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른들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 댁으로 되돌아가고 지저분해진 식탁 정리와 설거지를 하여 물이 묻어있는 식판을 마른 행주로 닦는 마무리까지 숭선수범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겸손히 섬길 줄 아시는 객지점장님과 직원들이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중국

### 1. 중다일의 여름방학

여름방학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시작하며 방학 동안 각자의 재능을 살린 특별활동과 아이들의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멀리서 돌아오는 대학생 형, 언니들과 부족한 공부도 하고 특별히 권윤경 선생님과 영어 특별 수업을 했으며 예체능 관련 학원수강과 무엇보다 열심히 뛰어 놀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만들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이었습니다.



흔해 현재 만삭인 박려나가 남편과 방문해 이틀동안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녀왔습니다. 9월 3일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아기를 낳기전에 집에 한번 다녀가고 싶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멀리 지아오화(교화)에서 동생들 간식을 사들고 집으로 온 려나의 모습이 감사하고 가슴 뭉클합니다.

### 2. 변방부대 견학



훈춘시 합작구에 있는 중국, 러시아 변방부대의 초청으로 다일어린이집 온 가족이 부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육로로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다녀오고 부대에 초대받아 군인들의 훈련과정과 생활을 참관하고 부대에서 직접 길러 잡은 돼지고기로 맛있는 점심식사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3. 려나의 방문

다일어린이집에서 성장해 이제는 결

### 4.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터) 5차 방문봉사



8월5일~10일까지 양자선교회의 5차 방문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부르며 여간 좋아하는게 아닙니다. 한주간 맛있는 특식도 해주시고 온 가족이 물놀이도 다녀왔습니다. 허에스터 목사님의 그림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후원하셨고, 돌아가시며 고등학생 학비, 김성춘의 대학생학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5. 성춘이의 대학 합격

지난 1년간 열심히 공부한 성춘이의 대학 합격소식이 알려지자 김성춘의 대학등록금과 대학 생활비 지원을 위해 공두F&C 한윤주 사장님과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터)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성춘이가 너무 행복해 하며 열심히 공부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희망찬 대학생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

### 1. 여름청소년수련회

캄다일센터의 주일은 4번의 예배가 드러집니다. 그중에 언제나 진지하고 뜨겁게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을 품고 기도하다가 방학 기간동안에 한국교회들처럼 수련회를 해보기로 작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26~28일까지 2박3일 동안 먹고 재우면서 낮에는 밥퍼봉사를 함께하며 노동기도를 체형게하고 밤에는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주선하며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지만 잘 진행되어질 청소년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이들로 인해 캄보디아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계절이 임하도록...

### 2. 해방교회 단기선교팀



18명의 청소년들과 네분의 지도교사 및 전도사님들로 구성된 해방교회 단기선교팀은 매일의 밥퍼, 빵퍼사역 봉사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도 날마다 정한시간에 모여 1시간 이상씩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선교비를 아끼고 근검절약하여 남긴돈 2천불을 캄보디아 청소년수련회를 위해 써달라며 전액 목적 헌금으로 드리고 가셔서 캄다일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눈물짓게 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다가신 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방교회 엿짜!(최고!!)

### 3. 최별자매와 SBS팀 봉사



최일도목사님과 김연수사모님의 막내동이 최별자매와 고교친구들의 모임인 SBS팀이 8월 5~10일까지 캄다일센터에서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집에서 귀하게만 자란 요즘 아이들

답지 않게 험하고 힘든일도 서슴없이 덤벼들어 단숨에 잘 해내는 것을 보며 참 대견하였습니다. 나흘을 온전히 봉사한 후 마지막 하루의 관광하는 날에도 다일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다며, 인솔하는 이기영선생님에게 예쁜투정을 부렸다고 하네요. 내년에도 꼭 다시 오세요. 감사해요. SBS팀!!

## 탄자니아



쿤두치 밥퍼 센터 배식 전, 미리 와서 밥퍼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천막 아래에 앉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물끄러미 구경만 하는 아이들에게 함께 촬영하자고 여러번 권유를 하였는데 끝까지 촬영에 응하지 않더군요. 알고 보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사진에 찍히면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뺏긴다고 여긴답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과 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쿤두치 밥퍼 센터 외벽에 부착하려 합니다. 수 많은 이들에게 수 많은 사진을 찍히지만 정착 자신이 찍힌 모습을 사진으로 거의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큰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려

고 밥퍼 센터 앞에 매일 삼삼오오 모여 깔깔 거리며 웃을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부터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 기쁨이 그대로 전해 지시는지요?^^

## 필리핀



8월 6일, 소방 관리자가 필리핀다일공동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소화기를 매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군요. 한번도 안 썼건만 돈을 들여서 새로이 바꿔야 하는 게 아깝긴 했지만 매일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들락날락 하는 센터이니 최상의 방재용을 구비해 두는 게 필요하겠죠? 소화기를 직접 분사해보기도 하며 스텝들이 소화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텝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이건 우리 센터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이웃집에서 불이 나거든 그 댄 곧바로 이것 갖다가 사용하라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

## 미주





2013년 7월22일~8월20일

시카고 한인축제에서 미주다일공동체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며 다일공동체의 사역 또한 많이 알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스 음식 판매 전 수익은 제3세계 굶주리는 아동들의 급식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 토종NGO 다일공동체 화이팅!!

천사병원

1. 한.중.일 기독의사회 봉사활동



한.중.일 기독의사회에서 5개 나라 (한국,몽골,타이완,홍콩,일본) 각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약사, 의대생분들 총 24분이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밥퍼봉사를 하신 후 오후에는 다일천사병원에 오셔서 봉사해주셨습니다.^^ 먼저 다일복지재단, 천사병원에 대한 간단한 OT를 김현자 실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영어버전으로 제작된 다일복지재단과 BCP, 천사병원을 영상물을 시청한 후 2,3,4층 진료실, 약국, 입원실, 간호스테이션등 라운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운딩 후 남자봉사자분들은 5층 공사 자재를 재단 후문쪽 환경미화봉사를 하였고 여자봉사자분들은 주방 봉사로 섬겨주셨습니다. 더운날씨에

비지땀을 흘리며 고생하시면서도 열굴한번 찡그리지 않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잃지 않으셨던 기독의사회 감사합니다.

2.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약품후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약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천사병원에 꼭 필요한 약품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보내 주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합니다. 이 약품으로 사회의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더 섬기겠습니다.

3. 영일제약 김영주님 약품후원



영일제약 김영주님께서 약품을 후원 해주셨습니다. 이 약품들을 통해 아픈 이웃들의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치유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작은천국

1. 다일작은천국의 새로운 천사  
다일작은천국의 새로운 천사분이 오셨습니다. 뇌병변으로 복합장애 1급



이신 최\*진 천사님. 최일도목사님의 배려로 이곳 다일작은천국에 입실하시게 된 최\*진님은 자신도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조울증이 있는 아들도 짐을 덜게 되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최\*진님께서 요양을 잘 하셔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세상에 우뚝서는 그날까지 저희 작은천국에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8월 생신잔치



이번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오00님과 남00님 입니다. 꼬깔모자를 쓰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십니다.^^ 오00님은 심부전증을 갖고 계시지만 다일작은천국 주방에서 자활근로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남00님도 고령이시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신규후원자

(주)에이치엠에스, (주)정인광학, (주)하이너스, 500000, Heaven, 강동구, 강춘수, 강태용, 강현모, 고정희, 락근열, 구름산초3-7, 구름산초3-1, 구자미, 권혁삼, 권혁삼, 김영신, 김근성, 김금석, 김기순, 김도환, 김동은, 김명숙, 김미라, 김미임, 김미향, 김보미, 김성부, 김성유, 김수철, 김연희, 김용구, 김인수, 김정훈, 김정희, 김종숙, 김종웅, 김중환,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채환, 김충복, 김학철, 김호진, 김희숙, 남상윤, 노용석, 동준규기현, 맹규섭, 문선경, 박보영, 박상인, 박순옥, 박영순, 박영환, 박윤정, 박인대, 박중순, 박준서, 김도훈, 박진구, 박창애, 박창애, 박창용, 박한수, 현수, 방정환, 백골, 백해준, 서영춘, 서은영, 서정령, 서정민, 서정식, 서춘화, 서하나, 서해원, 성서교회, 송인준, 송인준, 스토니브룩스쿨, 신계영, 신라나, 신안교회, 신윤옥, 신재윤, 신지현, 안부기, 안인옥, 양경희, 엄수경, 염진형, 영동고경영동아리, 우현수, 원정숙, 유성호, 유정재, 유진희, 윤대원, 윤여영, 윤영자, 윤혜경, 윤혜경, 이경찬, 이공순, 이광욱, 이대영, 이명숙, 이상구, 이상미, 이성환, 이수광, 이수빈, 이연경, 이예빈, 이용현, 이원재, 이윤진, 이이숙, 이재우, 이종묵, 이지연, 이진희, 이현미, 이현숙, 이현진, 이형지, 인보영, 임경숙, 임보미, 임보미, 임석도, 임정숙, 임정옥, 장갑순, 장미숙, 장재훈, 장중식, 전남일, 전지민, 정미아, 정연신, 정예진, 정은지, 정희정, 조진선, 조한나, 조해연, 주님의아들, 지연희, 차보민, 채민석, 채서연, 채종익, 최미옥, 최미자, 최석구, 최승철, 최승철, 최연진, 최인선, 최현보, 코비한의원, 공동한윤주, 태진인터네셔널사우회, 한국기독의사회, 한동대아웃리치팀, 한성우, 한영순, 함명옥, 함명옥, 함종량, 홍수임, 홍예원, 홍유나, 홍중순, 휘봉고, 밝은사회 (가나다 순)

7월11일~8월10일

밥퍼 - 후원금

현대상선, 외환은행나눔재단, 소망봉사팀, (주)포앤이엔씨, 이환희, 한마음교회, 김향숙, 최주영, 신민숙, 맥쿼리(허윤정), 수도권산악회, 윤현숙, 정산남, 권혜진(휘슬러비즈), 광현교회, 김성철, 강찬훈, 홍경화, 옥합선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에스지엔지, 대한변호사협회, 쌍용양회공업(주), 태진인터네셔널, 이희숙, 김은정, 이성희(미디어리서치), 정선경, 양순화, 박종일, 국순애, 한동대아웃리치팀, 이종욱, 황재영, 장문성, 김재하, 광주신안교회, 번성하는104, (주)에이치엠에스, 황귀중, 서장선, 구미목장교회, 스토니브룩스쿨, 옥합선교회, 이동원, 조현숙, 최경근, (주)에이엠지코, 영동고등학교경영동아리, 양경희, 한국기독의사회, SCL, 남상윤, 아띠산악회, 국방홍보원

7월11일~8월10일

밥퍼 - 후원물품

7/15 (주)친환경두채류사업단 콩나물 20box	7/17 서울유우 우유 1008개	7/25 드림재단 빵 800개
7/15 윤희미트 돈돈뽕 3box	7/17 드림재단 빵 800개	7/25 (주)친환경두채류사업단 콩나물 20box
7/15 무명 과일 12box	7/19 골드후레쉬 수박 38통	7/27 노경애 아삭이고추 5box
7/16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7/19 동방유통 육계 50마리	7/27 성동교회장로님 공산품 1box
7/16 윤희미트 돼지사골 20kg	7/23 가나다푸드 김치20kg 1box	8/2 나누잡 쌀20kg 1포
7/16 박진성 쌀20kg 50포	7/24 사조해표 김 552봉, 고추가루 168봉,	8/6 (주)친환경두채류사업단 콩나물 20box
7/17 곰소식품 명이나물10kg 21통	건강초 670병	8/10 금란요리학원 쌀20kg 10포

베트남

우리는행(4,249,200동), 롯데리아(420만동), 포스코베트남(600만동), 나할(250만동), 사이공한인연합교회(300만동), LOSCO, 대광, LG화학(480만동), 보민건설(400만동), 대우인터네셔널, 포스코 SOUTH ASIA, 김무민, 기업은행(3,155,000동) 갈비지존(540,000만동), A1마트(724,000동), K마트(371,000동)

베트남-후원물품

LG화학(쌀600kg, 비누,치약,치솔120개), 삼성전자(노트북 1대, 카메라 1대, 식탁10개, 의자 120개), 김무민(요구르트 150개, 초코파이 120개), 포스코ICT( 쌀20kg, 바나나), 기업은행(우유 144개)

중국

김성재(Obey & Praise), 남양주 평화교회(인솔 반대현), 강령남(중국 심천), 이숙의(미국 시카고), 권윤경(중국 훈춘), 림예화+한

원철(중국 훈춘), 졸업생 박려나 부부(과일4상자)

캄보디아

프놈펜 제일교회, 전용민, 한상소, 김순애, 라온아띠 9기, 대박, 카도, 두웰플러스, 명지전문대, 안산대, 연세대, 김재범/소씨웃, 동대문감리교회, 정은주, 박두환목사님, 창천감리교회, 은평한국문화센터 서창숙, 한국교통대학,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비즈니스전공 학생일동, 박태근, 임선옥, 상계광림교회, 동송교회, 안산공의교회, 강원도청, 유석용, 서정윤, 김종훈, 유식용, 부산RCY, 김재춘, 이현화, 전용민, 한상소, 김순애, 라온아띠 9기, 대박, 카도, 수원시자원봉사센터, 홍성표/수현/수빈, 은석초/삼육초(이창희6명), 이계훈/백은경/이수빈/이예빈, 박두환목사님, 두웰플러스, 사진동호회, 장은지/목진경, 박경희, 울산동백, 옥산초등학교, 행복한국교회, 교원여행, 정암교회, 종교감리교회, 경남창원 공진철, 인천보건교사협의회, 노현경, 선인자, 박양열가족, 박시호, 김영우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